

『묵암집(默庵集)』 영역시고(英譯試考) — 문체적 요소들을 중심으로 —

유 나 경
(동국대, 서울)

1. 서론

필자는 본 연구를 통해 조선후기 불교선사문집들 중 하나인, 묵암최눌(默庵最訥)의 『묵암집(默庵集)』영역을 시고(試考)해 보고자 한다. 한문원작인 ST1(『묵암집』 - 『한국불교전서 (韓佛全 HPC)』 10권)과 한글번역본 ST2(동국역경원, 1995)를 바탕으로 영어번역본 TT의 텍스트창출을 위해 작품에서 나타나고 있는 『묵암집』의 문체적 요소들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한문불전이 영역화 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살펴 볼 것이다. 또한 해당 문집을 직접 번역하면서 생기는 문제점들과 번역불가능성에 대한 측면도 함께 다뤄 볼 예정이다. 아직 시작단계인 한국불교문집의 영문번역은 지금의 연구를 기반으로 향후 불교문집을 영역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묵암집』은 조선후기에 제작된 문집으로, 조선시대 문집과 관련한 영역사례

는 2012년 조계종에서 출판된 존 조르겐슨(John Jorgensen)이 번역한 청허휴정(淸虛休靜, 1520~1604)의 문집 『휴정선집(Hyujeong Selected Works)』과 2015년 하와이대학에서 출판된 동일선사문집 『선가귀감(A Handbook of Korean Zen Practice)』이 있다. 당시 부휴계와 양대산맥을 이루었던 청허계의 청허휴정 문집들을 영역한 측면에서 봤을 때, 부휴계에 있어서도 부휴계 적손들 중 하나인 묵암최눌의 문집을 번역해 보는 일은 영어권 독자들에게 있어서 조선시대를 대표한 두 계파의 관련 인물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조르겐슨이 청허휴정문집을 번역한 사례들과 함께 비교해 볼 것이며, 특히 가장 최근에 발간된 『선가귀감(禪家龜鑑)』영역본과 함께 『묵암집』의 문체적 요소들을 분석하여 한문불전의 영역화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한국불교전서 10권에 수록되어 있는 『묵암집』은 역사적으로나 사료적으로 가치가 큰 작품이다. 이 문집은 조선후기인 1801년(순조 1년) 묵암최눌의 제자 교평(敎萍)이 정리, 간행한 것인데, 조선후기는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국가가 유교라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기존의 불교의 영향이 가장 많이 쇠퇴한 시기이다. 숭유억불(崇儒抑佛)정책으로 불교에 대한 국가적 탄압과 제재가 가장 심했으며, 이로 인해 불교계의 위기의식과 불안이 커져갔다. 이러한 불교계의 전반적인 위기의식은 문집의 대량 출판이라는 현상을 통해 드러나게 되고, 『묵암집』은 그러한 흐름 속에서 제작된 문집 중에 하나이다. 『묵암집』의 저자인 묵암최눌(默庵最訥, 1716~1790)은 당시 불교의 맥이 끊길 것을 걱정하며 글을 통해 후대에 불교를 전하고자 하였다. 특히, 그의 문집의 첫 번째 권인 『묵암대사시권초(默庵大師詩抄卷初)』에서는 다른 문집과는 다르게 순수하게 자연을 읊은 시가 드문데, 우음(偶吟: 우연히 읊은 시)이나 차운(次韻: 화답시), 증여시(贈與詩: 선물시)등을 살펴보면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묵암최눌 선사가 전하고자 했던 불교적 메시지가 분명히 드러나 있다.

『묵암집』은 그러한 불교사상적 가치와 더불어 불교문집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체적 요소들을 통해 조선시대의 문집에서 주로 사용하였던 다양한 한문 문헌의 작문 방식들을 살펴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은유적 소재에 대한 고려, 운율감을 주기 위한 각운의 형식적 배치, 의도적 어휘 선택, 함축적 문장구성 등을 들 수 있다. 이렇게 문집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문체적 요소들은 번역을 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기본적인 대상이 되는데, 이와 더불어 역자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이와 같은 기본적인 형식 틀 안에 원저자가 말하고자 했던 불교적 특성이나 심미적 장치를 잘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특징들을 잘 살려 번역을 할 수 있을까? 뉴마크(Newmark, 1981: 7)는 번역은 같은 내용 혹은 맥락을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옮기는 작업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곧, 번역이라는 과정은 원천텍스트(source text)의 내용과 형식 모두를 목표텍스트(target text)에 담아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번역은 현실적으로 온전히 실행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ST의 형태는 출발어인 언어 관습에 의해 정해지지만, 도착어인 TT의 언어로 옮겨질 경우 상충되거나 혹은 모순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형식적인 측면에 너무 집중하게 되면 텍스트 자체의 내용이나 의미가 상당히 모호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체의 수용성(혹은 용인성, acceptability)적인 측면이 중요하다 하여 이러한 부분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혹은 언어마다 그 기준이 다르다 하여 문체를 변경하게 되면, 작품의 본질적인 내용이 왜곡될 우려도 있다.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는 한문원전(ST1)과 한글번역(ST2)에 실린 문체에 충실하되, 영어번역(TT)에 맞추어 수용성을 어떻게 적절히 적용시킬 것인지 문집의 문체적 요소들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원문과 한글번역을 기반으로 영어라는 목표텍스트로 옮겼을 때, 고유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으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에 어색하지 않도록 번역텍스트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연구해 볼 것이며, 이를 조르겐슨이 영역한 청허휴정문집의 예시들과 함께 비교, 검토해 볼 예정이다. 『묵암집』은 이와 같이 상당히 흥미로운 연구주제이기 때문에, 문집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문체적 요소들을 통해 영역을 시도해 보는 일은 앞으로 문집 영역분야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2. 『묵암집(默庵集)』의 문체적 요소들

『묵암집』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체적 요소들은 불교적 색채가 가미되어 그 특징을 더하고 있다. 이는 다른 장르와 구별되는 작가의 독특한 언어적 제시를 통해 마음이 표출되는 형식을 띄게 되는데, 화자의 마음이 특정 전문 언어 사용

역 변인인 레지스터(register)를 결정하게 된다(권병철, 2012: 39). 『목암집』과 같은 선사문집의 경우, 적멸(寂滅: 번뇌가 소멸되어 마음이 고요해진 상태), 진소식(眞消息: 깨달은 소식), 일법(一法: 일심과 동일한 의미로 자주 사용되고 있으며, 참 마음을 가리킴)등 다른 문학과는 다른 고유의 어휘체계를 지니고 있으며, 문집은 이러한 특정 어휘들을 토대로 한 일종의 문학 텍스트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사전적 의미를 토대로 역자가 원천텍스트를 재해석하고 재구성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 이를 “인지시학”이란 용어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츠이(Tsur, 2008: 1)는 인지시학을 인지과학이 제시한 기법을 활용하여 문학을 연구하는 학제간의 접근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인지”는 “문학 작품을 읽는 과정”, 즉 “정신적인 과정(mental process)”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시학”은 “문학에서 사용된 문체적 기법과 연관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Stockwell, 2002: 1). 이러한 두 가지 요소를 통해 원천텍스트(한문 혹은 한역)의 문체적 해석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또한 문학을 연구하고 번역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주기도 한다. 본 『목암집』 연구에 있어서도 이러한 인지적인 측면과 시학적인 측면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선, 필자는 시학적인 측면, 즉 시학적 요소를 먼저 알아보고자 한다. 『목암집』의 첫 번째 권인 「목암대사시초권초(默庵大師詩抄卷初)」에 등장하는 오언율시, 칠언율시, 오언사운, 칠언사운등의 시 형태를 포함해, 제 삼권에 등장하는 상량문(上樑文: 건물을 중창할 때 앞으로의 중흥을 기원하는 글)과 축소(祝詞: 축원문 혹은 발원문)등과 같은 글들은 운율감 있는 형식을 통해 불교적 소양이 접목되어 시학적 효과를 주고 있다. 장 보아즈 베이에르(Jean Boase-Beier, 2011)는 이러한 시학적 효과를 다음과 같이 풀어쓰고 있다. “문학텍스트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노드(Nord)가 제시한 것처럼 시학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특징짓는 것이다. 시학적 효과에 대해 필킹턴(Pilkington)은 텍스트를 독자에게 주고 내포 의미를 풀어내거나 태도를 해석해가면서 텍스트가 이해될 수 있는 맥락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다시 말해, 해당 텍스트를 해석, 처리하는 동안에 일어나는 인지적 효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재배열된 지식의 구조나 혹은 더욱 굳건해진 믿음과 같은 일반적인 인지적 효과일 수도 있고 또는 시학(문학적 텍스트에 의해서 촉발되는 감성적이고 정서적인 마음 상태)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권병철, 2012: 42)”. 이는 운율적 규칙과 시적감성을 주는 문

체적 요소들을 통해, 독자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다를 수 있으며, 인지정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해주고 있다. 따라서 두 번째 요소로 인지적 요소를 살펴보려 한다. 문집번역에 있어서 인지적 효과를 주는 핵심 요인은 불교어휘에 대한 친밀도라고 할 수 있다. 전문 불교 어휘들이 문집에 자주 거론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감성으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측면들이 많이 있으며, 또한 개별적 수행의 양상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용어를 수용하는 정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이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 슈미트(Schmidt)가 말한 커뮤니카트(Kommunikat)라는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커뮤니카트(疏通素)는 개별 독자가 텍스트를 인지하고 스스로 내용을 구성하여 타자와의 소통을 시도하는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을 통해 의미가 창출된다. 다시 말하자면, 텍스트에 대한 이해, 커뮤니카트(소통소)의 형성,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의미 구축 등의 과정을 통해 공인된 의미가 도출되는 것이다(이광복, 1999: 247). 여기서 타자와의 소통인 커뮤니케이션은 번역의 경우에 TT(목표텍스트)와의 커뮤니케이션으로도 볼 수 있다. 이근희(2006: 137)는 이러한 커뮤니카트를 번역하는 데 있어서 원저자의 원문, 번역자의 번역, 독자의 독서과정, 간텍스트적인(intertextuell) 가공물 등에서 생성될 수 있다고 보며 명제, 감성, 실용적 층위를 갖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불교문집의 경우 불교어휘들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명제적 층위와 그러한 용어들이 주는 감성적 층위, 불교어휘들을 통해 현실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실용적 층위를 통해 문집 고유의 커뮤니카트가 형성되며, 문집에 대한 독자들의 인지체계가 성립되게 된다. 이러한 인지과정은 문집을 보는 시선 즉, “사유의 의식작용”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불교라는 큰 틀 속에서 현대적인 시선으로 문집을 재해석해가며 번역을 하게 되고, 역자뿐만 아니라 독자 또한 목표텍스트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해 가게 된다.

이와 같이 시학적 요소와 인지적 요소들을 토대로 문집의 해석이나 번역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불교문집은 특정 장르이기 때문에 그 오차범위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번에 연구할 『묵암집』은 그러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영문번역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접근방식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3. 문체적 요소들을 통한 『묵암집』 영역

3.1. 시학적 요소

시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시학적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대표적인 경우에는 어휘 표현의 반복과 중복된 형태소의 생략, 동일 각운의 배치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한문문헌과 관련된 자료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묵암집』이라는 작품 또한 그러한 장르에 속하기 때문에 비슷한 현상들이 눈에 많이 띈다. 이러한 특징들을 다음의 예시들을 통해 살펴해보도록 하겠으며, ST1은 『묵암집(默庵集)』 원전에서, ST2는 1995년 발간된 동국역경원 『묵암집』 한역본에서 발췌하였다.

(1) 어휘 표현의 반복과 중복된 형태소의 생략

(ST1) 斷雲外之青山, 建主中之寶殿.

喝雲叱石, 蒺藜化爲琉璃,

碎牆夷基, 沙磧變作珠玉.

右慈蔭而左水石,

背眞樂而面枕溪. (HPC 10.19b13-16)

(ST2) 구름 밖의 청산을 깎아, 도량가운데 보전을 세웠다.

구름을 꾸짖고 돌을 나무라니, 쪼레가 유리(보석)로 변하며,

담장을 부수고 터를 고르니, 모래와 자갈이 주옥으로 변한다.

오른쪽은 자비로운 그늘이요, 왼쪽은 물과 돌이며,

뒤로는 진락이요, 앞은 시냇가이다. (『묵암집』, 1995: 596)

(TT) Cutting out a blue mountain from the cloud,

We set up this glorious hall in the monastery.

By scolding clouds and rebuking stones,

Brier roses change to jewels,

By breaking down fences and preparing the ground,

Sands and pebbles change to jades.

On the right, cool shade; on the left, water and stones.

In the rear, true pleasure; in the front, a creek.

본 예문은 「송광사 영자전 상량문(松廣寺 影子殿 上樑文)」이란 제목의 글이다. 상량문은 사찰에서 건물을 중창할 때 앞으로의 중흥을 기원하는 뜻으로 짓는 글인데, 글의 특성상 불교의식의 형식을 가미한 기도문의 형태를 갖추게 된다. 사찰에서 행해지는 엄불의례와 같이 글속에서 곡조가 느껴지며, 이러한 이유로 전반적인 글의 분위기가 시적인 느낌으로 강하게 다가온다. ST1의 첫 문장을 먼저 살펴보면, “斷雲外之靑山/建主中之寶殿(작운외지청산 건주중지보전)”으로 6·6의 형태를 띄며, 여섯 글자씩 두 구절이 한 문장을 이루어 대구를 이루고 있다. 두 번째 문장도 마찬가지로, “嘯雲叱石/痰藜化爲琉璃(갈운질석/질러화위유리) 碎牆夷基/沙礫變作珠玉(쇠장이기/사력변작주옥)”이 4·6, 4·6의 형식으로 한 문장에서 대구를 이루고 있으며, 세 번째 문장에서도 “右慈蔭而左水石 背眞樂而面枕溪(우자음이좌수석 배진락이면침계)”가 7·7의 형식으로 일곱 글자씩 짝을 맞춘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원문이 표면적으로는 평서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자세히 살펴보면, 문장의 구성이 시 형식을 갖추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ST2의 한역을 통해 그 부분이 좀 더 명확히 드러난다. 첫 번째 문장의 한역에서 “구름 밖의 청산을 깎아, 도량가운데 보전을 세웠다.”는 “영자전”이라는 전각에서 앞을 바라봤을 때, 펼쳐진 풍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영역했을 때, “Cutting out a blue mountain from the cloud, we set up this glorious hall in the monastery.”라고 하였는데, ‘청산’은 원래 녹색이지만, 영어식 표현에서는 “blue mountain”이라 하여 관용적으로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적용시켜 보았다. 하지만, 운율적인 측면에 있어서, ST1에서 느낄 수 있는 리듬감을 TT로 옮기기에는 조금 어려웠는데, ST1에서는 “外之 / 中之”라는 반복된 양식을 사용하였지만 이를 영어로 옮겼을 때는 “out~from / in~”의 방식으로 표현구조가 달라져, 시학적 느낌을 주기는 힘들었다. 따라서 이 문장은 ST1의 내용을 충실히 담아내는 것을 중점으로 하였다. 두 번째 문장에서는 “구름을 꾸짖고 돌을 나무라니, 찰레가 유리(보석)로 변하며/ 담장을 부수고 터를 고르니, 모래와 자갈이 주옥으로 변한다.”라 하며 “하니, ~변하며/ ~하니 ~변했다.”라는 대구 형식을 취하면서, 건물을 중창하는 신성함과 경이로움을 “유리”와 “주옥”으로 표현하였다. 이 문장 또한 시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영역에 있어서도 그러한 부분을 적용시켜, “By scolding clouds and rebuking stones, brier roses change to jewels, by breaking down fences and

preparing the ground, sands and pebbles change to jades.”라 영역하였다. 이 문장은 “by ~ing” 형태를 반복 사용하여 대구 형식을 취하였다. 그러나 세 번째 문장에서는 위의 두 문장과는 다르게 영어의 2형식 형태로 반복되는 be동사가 있다. “오른쪽은 자비로운 그늘이요, 왼쪽은 물과 돌이며, 뒤로는 진락이요, 앞은 시냇가이다.”를 “On the right, cool shade; on the left, water and stones, in the rear, true pleasure; in the front, a creek.”라고 영역하였는데, ST1의 원문에서는 “而”라는 영어의 “and”의 의미를 지닌 단어를 사이에 두고 두 문장이 완전한 문장(full sentence)을 이루고 있지만, 영역에서는 완전한 문장이 아닌 “there is(or are)”의 중복을 생략시켜, “and”라는 접속사 대신 등가적 표현기법을 나타내는 “;(semicolon)”을 사용해 시학적 효과를 주었다. 벤자민(Benjamin, 2006: 135)은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완전하지 않은 형태로 문장을 의도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문체적 단장(斷章) - stylistic fragment”이라고 칭했는데, 이는 상량문이라는 형식이 기도문(혹은 발원문)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운율감이 느껴질 수 있는 이와 같은 장치가 그 효과를 더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존 조르겐슨이 2015년 번역한 청허휴정의 문집 『선가귀감』을 통해 이를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Layer after layer of mountains and waters,
Cool and white the scene of your old home. (Jorgensen, 2015: 88)

이 문구는 조동종의 굉지정각(宏智正覺, 1091~1157)의 시 가운데 “Cool and white the scene of your old home.”라는 한 구절을 인용하여 청허휴정이 지은 시를 영역 한 것이다. 한역을 하자면, “겹겹이 쌓인 산과 바다, 청량한 날씨와 흰 구름은 옛집의 풍경이로세.”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영역한 조르겐슨 역시 시적인 느낌을 잘 전달하기 위해 문체적 단장(斷章)효과를 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시가(詩歌)에서 자주 활용하는 기법이어서, 위의 사례처럼 운율감이 느껴지는 시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다양한 형식의 사례들을 바탕으로 『묵암집』을 영역하는데 있어서, 글의 특성을 살려 시학적 효과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2) 동일각운의 배치

(ST1) 次松庵韻

此道從來貫萬事
等閑拈起與人看
別後欲知眞消息
只有天邊月一團 (HPC 10.6c6-8)

(ST2) 송암의 운을 따라

이 도는 원래 모든 것을 꿰어있다고,
예사로이 지적하여 그대에게 보여주네.
헤어진 뒤에 참 소식을 알고 싶은가.
다만 저 하늘에 달하나 떠 있을 뿐이네. (『묵암집』, 1995: 502)

(TT) Follow Song'am's poem

"This Road is originally connected to all things."
Sometimes, I point it out and show it to you.
After our farewell, do you want to know the true news?
There is just a bright moon in the sky.

같은 음소단위를 가지는 어휘를 맨 끝에 배치하여 각운의 느낌을 살리는 일은 전통한시에서 자주 쓰이는 작시(作詩)방법이다. 각운을 배치하는 이유는 글을 읽을 때, 운율감, 즉 리듬감을 주어 읽는 이로 하여금 글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한시의 종류로는 오언사운, 칠언사운, 오언율시, 칠언율시가 있는데, 오언사운은 다섯 글자로 이루어진 행이 총 네 개가 있는 것이며, 칠언사운은 일곱 글자로 된 행이 네 개가 있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오언율시는 다섯 글자로 된 네 개의 행이 두 묶음으로 하나의 단위를 이루고 있으며, 칠언율시는 일곱 글자로 된 네 개의 행이 두 묶음으로 하나의 단위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4가지 형태의 시들이 각운의 배치에 있어서는 주로 “○○○○● ○○ ○○● ○○○○○ ○○○○●”으로 1, 2, 4행의 끝에 위치하여 “ㅏ, ㅑ, ㅓ,

ㅇ, ㄴ”등과 같은 동일 음운(音韻)을 사용해 일정한 규칙을 따르고 있다. 『묵암집(默庵集)』의 맨 첫 번째 권인 「묵암대사시초권초(默庵大師詩抄卷初), The Great Master Mukam's Poems - Fascicle One」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하지만 이러한 형식을 내용과 모두 일치하여 영어로 번역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 이유는 한자로 시를 지을 때, 한글로 발음했을 때와 비슷한 음운을 가진 어휘를 적용시키지만, 한자를 영어로 옮겼을 때 영역을 통한 동일 각운 배치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위의 예시와 같이 1, 2, 4행의 맨 끝의 운(韻)을 살펴보게 되면, “事, 看, 息, 團”과 같은 단어들을 볼 수 있다. 한음(漢音)으로는 “사, 간, 식, 단”으로 3번째 행의 “息(식)”을 제외하고는 모두 “ㄷ”로 운운을 맞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한글번역과 영문번역에 있어서는 앞서 언급했다시피 한문시의 형식을 맞추며 내용을 담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한글번역에 있어서도 “이 도는 원래 모든 것을 꿰어있다고, 예사로이 지적하여 그대에게 보여주네. 헤어진 뒤에 참 소식을 알고 싶은가, 다만 저 하늘에 달하나 떠 있을 뿐이네.”라고 번역 하며 둘째 넷째 행만을 “~네”라는 끝 음자(音子)로 운(韻)을 일치시켰다. 이는 사실 시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맞춘 것이라기보다는 끝맺는 말이기 때문에 자연스레 맞춰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영역을 하는 과정에서, 한글번역보다는 한문원전에 훨씬 더 무게를 둘 필요가 있는 경우도 발생한다. 위의 예시를 원문을 토대로 영역하게 되면, “This Road is originally connected to all things. Sometimes, I point it out and show it to you. After our farewell, do you want to know the true news? There is just a bright moon in the sky.”라고 할 수 있으며, 각 행을 “things, you, news, sky”로 끝을 맺었다. 영역에서는 단지 첫째, 셋째 행만을 “s”로 일치시켰지만, 이는 한문의 첫째, 둘째, 넷째 행의 각운을 일치시킨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한문과 한글 그리고 영어의 음운과 어휘체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인데, 따라서 동일한 문체형식을 갖추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조르겐슨이 영역한 것으로, 위에서 제시한 사례와 같은 형식으로 시가 구성되어 있다.

(ST1) 古佛未生前
凝然一相圓

釋迦猶未會
迦葉豈能傳 (『불법연구회근행법(佛法研究會勤行法)』, 1939)

(ST2) 과거의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기 이전에도,
일원상의 진리가 뚜렷이 존재해 있었네.
석가모니도 그 뜻을 확실히 알지 못했거늘,
가섭존자가 어찌 후세에 전할 수가 있었겠는가.

(TT) Before the ancient buddhas were born,
It was coalesced into the form of a circle.
Śākymuni had yet to understand it,
So how could Kāśyapa have transmitted it? (Jorgensen, 2015: 78)

ST1의 원문은 선승(禪僧)인 자각종색(慈覺宗蹟)의 시이다. 이 시도 “송암의 운을 따라”와 마찬가지로 같은 형식을 취한 것을 볼 수 있는데, “古佛未生前(고불미생전)/ 凝然一相圓(응연일상원)/ 釋迦猶未會(석가유미회)/ 迦葉豈能傳(가섭기능전)”으로 끝 음자가 “전, 원, 회, 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ㄱ ㄴ”으로 각운을 맞추어 지은 것인데, ST2인 한역에서나 TT인 영역을 살펴보면 원문과는 다르게 1, 2, 4행의 각운을 일치시키지 못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영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Before the ancient buddha were born, it was coalesced into the form of a circle. Śākymuni had yet to understand it, so how could Kāśyapa have transmitted it?” 이라고 하였는데, “born, it, it” 마지막 단어들의 혀의 위치가 같은 자리에서 끝나는 것을 통해, 발음에 있어서도 혀의 위치를 고려하게 되면 비슷한 음가가 발생되어 시의 리듬감을 살릴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장철환(2013)은 리듬, 즉 운율을 구성하는 것은 음가(音價)자체의 반복이라고 언급하였는데, 위의 사례에 있어서도 역자가 시에 대한 운율감을 살리기 위해 세심하게 고려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처럼 번역가가 번역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질적인 부분에 대한 번역불가능성과 종종 맞닥뜨리게 되는데, 이때 번역불가능성을 마주하는 번역가의 태도와 인식에 따라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노동욱, 2015: 90). 이는 필자가 어휘의 형태만을 일치시키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일깨워준 계기가 되었는데, 글자의 형태뿐만이 아니라, 발음에 있어서도 혀의 위치를 고려

하게 되면 비슷한 음가가 발생되어 시의 리듬감을 살릴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본 역자가 아직 원어민의 수준에 이르기에는 많이 부족하지만, 동일 각운에 대한 일치가 원천텍스트의 시학적 효과를 살릴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에서 영역을 바라보고 많은 연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2. 인지적 요소

불교문집의 인지적 요소들은 불교적 색채가 짙은 어휘들이나 문장들을 통해 문맥의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다. 다른 문학 장르에서처럼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어휘들이 불교문집에서도 종종 발견되지만, 불교문집이 가지는 독특한 방향성으로 인해 여타 문학과는 다른 어휘양상을 띤다. 필자는 이러한 어휘들, 다시 말해 불교적 어휘들을 어떻게 있는 그대로 느낌을 잘 살려 영역할 수 있을지를 용어에 대한 이해, 어휘선택, 구조적 전위, 보완적 결텍스트를 통해 알아보려고 한다.

(3) 용어에 대한 이해

(ST1) 扣寂軒

寂滅光中萬累捐
扣之之意豈徒然
不是青天轟霹靂
深潭寧得起龍眠 (HPC 10.4c11-13)

(ST2) 고적현

적멸한 광명 속에는 아무 괴로움도 없거니
그것을 두드리는 그 뜻이 어찌 헛되겠는가?
맑은 하늘에 벽력이 우르렁거리지 않는다면
깊은 못에서 잠자는 용을 어찌 깨울 수 있으리. (『목암집』, 1995: 474)

(TT) *Goj kh n: The house of knocking silence*

In the silent light, there is no suffering,
Why is it vain to knock at your mind?
If thunder does not make a sound in the clear sky,
How is it possible to wake up the dragon sleeping in a deep pond?

“적멸(寂滅)”, “광명(光明)”과 같은 어휘들은 불교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들인데 그 쓰임만으로도 글이 불교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뚜렷한 개성을 지니는 전문용어들을 어떻게 영역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이 번역을 하면서 늘 생기게 되는데, 이는 TT 텍스트로의 전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이다. ST1 시의 첫 구절인 “寂滅光中萬累捐(적멸광중만루연)” 가운데 “寂滅光中(적멸광중)”을 번역하는데 있어서, 2010년 박영의 교수가 편찬한 『실용 한-영 불교사전』에서는 “적멸”을 “great peace”로 설명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첫 문장에 적용시켜 봤을 때, “In the light of great peace”로 영역할 수 있었는데, 필자는 “적멸”에서 “적(寂) - 고요하다”라는 뜻을 함께 넣어 보고자 “silent peace”라 해보았다. 그래서 영역을 했을 때는, “In the light of silent peace”라 하였는데, 다소 딱딱한 숙어처럼 느껴져 교정이 필요했다. 사실, “적멸”과 같은 경우, 단어 하나하나를 영역해 보자면, “silent and extinguished” 혹은 “silent and peaceful”이라고 표현 할 수 있지만, 위의 사례와 같이 “적멸한 광명”이라는 하나의 의미단위로 묶었을 때 하나의 명사에 두 개의 형용사를 적용시켜야 할 경우, 가독성(readability)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적(寂)과 멸(滅)의 공통적인 의미를 찾거나 주된 의미만을 살려 광명(光明)을 수식하는 방법을 택해 보았는데, “of”라는 전치사가 생략된 “In the silent light”이라는 구절로 영역 하였다. 뉴마크(1981)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충실성과 가독성을 바탕으로 두 가지 번역방식을 논하고 있다. 바로 의미위주의 번역(semantic translation)과 소통위주의 번역(communicative translation)이다. 의미위주의 번역은 주로 원천텍스트에 나타난 미학적 표현들을 목표텍스트에 최대한 발현하는 것으로 충실성을 설명한다. 반면 소통위주의 번역은 해당언어권 독자들이 원천텍스트에 대한 맥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원문에 충실하기 보다는 TT(Target text)안에서 의미를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보충하거나 일정 어휘를 생략하기도 한다(박옥수, 2012: 40). 해당 『묵암집』 영역이 한문 원전과 한글번역에 충실한데 그 방향성을 두고 있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소통에도 동일하게 무게를 두어 번역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두 개의 용어(적과 멀)를 하나로 합치거나 선택하는 경우에 있어서 불교어휘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이는 불교 안에서 수행의 정도에 따라 어휘를 수용하는 정도가 달라지는 부분이다. 조르겐슨은 청허휴정의 문집을 번역하는데 있어서 어휘 선택의 탁월함을 보여주고 있다. 보통 일상적으로 “지혜(智慧)”를 번역할 때, “wisdom”이란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이는 “wise”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으로 지식(knowledge)의 질적인 측면에 훨씬 더 가깝다. 하지만, 불교에 있어서는 이러한 지혜는 지식이 아닌 수행의 과정에서 도출된 것으로 봐야 하는데, 이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조르겐슨이 번역한 『선가귀감』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As soon as sentient beings are born, their heads are round and their feet are square, [but] the sun of insight is covered by clouds of ignorance, and in the womb their eyes are as if blind and therefore cannot distinguish black and white. If the Buddha and patriarchs do not sweep away the clouds of ignorance with the wind of expedient means and do not remove with the golden lancet the motes [contaminating] your eyes, then there will never be a pledge to lead you from the rounds of birth and death. How said! Even though your body is smashed and bones broken, the grace of the Buddha and patriarchs cannot be repaid even in the slightest. (2015:81)

중생이 태어나자마자, 머리는 둥글고, 발은 네모났으며, (그러나) 지혜의 태양은 무지의 구름으로 가려져, 배속에서 눈은 마치 장님과 같아 흑백을 구별할 수 없었다. 만약 부처와 조사들이 방편의 바람으로 무지의 구름을 밀어내지 않고, 눈을 아프게 하는 티끌을 금으로 만든 칼로 제거해 주지 않는다면, 생사의 윤회로부터 건져달라는 소원은 절대 없을 것이다. 얼마나 슬픈 일인가! 비록 몸이 부서지고 뼈가 부러져도 부처와 조사들의 은혜는 조금도 갚을 수 없는 것이다.

이 글은 조르겐슨이 불법(佛法)의 의미와 수행(修行)에 대해 언급한 청허휴

정의 글을 번역한 것이다. 그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혜의 태양”을 “the sun of insight”으로 표현하였는데, 여기서 그는 지혜를 “insight(통찰)”로 영역하였다. 불교에서는 지혜가 수행을 통해, 마음을 들여다보는 선(禪)을 통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insight”, 즉, “통찰”이란 어휘가 그러한 불교적 관점을 잘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처럼, 역자가 불교문집을 번역하는데 있어서, 사전적인 의미를 아는 것과 더불어 어휘를 이해하는 능력이 번역의 방향을 결정하게 됨을 알 수 있다.

(4) 어휘 선택

영역을 할 때 보통 갖추어야 하는 태도는 통사적인 시각으로 문장과 맥락을 보는 일이다. 특히 문집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시각을 조금 더 강조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똑같은 단어라도 문장 내에서 긍정적으로 쓰이기도, 부정적으로 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한문을 배울 때 어려운 점은 한 글자에 좋고 나쁜 두 가지 뜻이 모두 다 내포되어 있다는 점이다. 문집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내용이 전부 한자(漢字)로 쓰여 있어서, 문장의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 글자의 뜻을 파악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의 예를 통해 어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ST1) 無知堂引

不仁哉 好知之過也. 鳥亂於張山之橫網 魚亂於入水之數罟 好知之過也. 絡馬首穿牛鼻而駢死於阜樞之間 好知之過也. 羊失於碁書之淫遊 珠隱於戰鬪之勇敢 好知之過也. 以至攻墟拔寨之賊 橫亘於雄都巨邑 探囊發櫝之盜 侵凌於豪族富室 上掎日月之光 下鑠山川之和 浚民魚奪 以致人與人相食 莫非好知之過也. (HPC 10.21a6-14)

(ST2) 무지당의 노래

불인하구나(어리석구나), 지를 좋아하는 허물이여. 새가 산에 날리 쳐둔 가로 그물에 어지럽고, 고기가 물에 넣어 둔 촘촘한 그물에

어지러운 것도 지를 좋아하는 허물이다. 말 머리를 얹고 소코를 뚫다가, 외양간이나 마구간 사이에서 죽는 것도 지를 좋아하는 허물이다. 바둑과 독서에 정신이 빠져 염소를 잃고, 싸우기에 용감하다가 구슬을 잃는 것도 지를 좋아하는 허물이다. 나아가서는 성을 치고 나무우리를 빼는 적이 웅도와 거읍에 함부로 날뛰며, 주머니를 더듬고 케를 뒤지는 도적이 호족과 부실을 침노해 빼앗으면서, 위로는 일월의 광명을 뽑아내고, 아래로는 산천의 화기를 녹이며, 백성들을 고기 잡듯 착취하여 사람과 사람이 서로 잡아먹게 함에 이르게 하는 것도 지를 좋아하는 허물이 아님이 없는 것이다. (『묵암집』, 1995: 605)

(TT) *A Song of the Muji house*

Silly! It is (your) fault that (you) like discrimination! That birds are agitated in a net covering a mountain, and fish are busy in the fine net in the water is caused by the fault that they like discrimination. That a person is dead between a barn and a stable tying horse heads and piercing a cow's nose is caused by the fault that he likes discrimination. That a person loses his goat by enjoying playing chess and reading a book and is brave enough to fight and loses his head is caused by the fault that he likes discrimination. Moreover, that foes attacking castles and breaking wooden cages harshly invade cities and hamlets, and that thieves groping pockets and rummaging in boxes invade and steal (money) from powerful and wealthy families and that villains exploit people like catching fish and let people prey on each other by darkening the light of the moon and the sun above and by disturbing the calmness of mountains and rivers below are all caused by the fault that they like discrimination.

불교문집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오류가 가장 많이 발견되는 부분은 바로 어휘선택이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역자들의 번역본이 내용상으로는 문맥상으로 별 무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나 좀 더 면밀하게 들어가 보면, 어휘를 잘못 선택한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똑같은 단어라도 문장 안에서 어떠한 의미로 쓰였는지에 따라 용어의 정의가 달라지는데, 특히 위 사례가 그 단적인 면을 잘 드러내

준다. “지(知)”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외국역자들은 주로 “지식(knowledge)”으로 번역한다. 물론, 글자 그대로 사전적의미를 봤을 때는 “지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수 있지만, 윗글의 맥락에 있어서는 “지식”이 아닌 “분별심(discrimination)”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그 이유는 “지(知)”라는 어휘가 포함된 문장 안에서 “좋고 나쁨”, “높고 낮음”, “강하고 약함”, “부유함과 가난”과 같은 차별적 내용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처럼 통사적인 시각을 갖추고 어휘를 선택하여 번역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잘못된 영역이 나올 수밖에 없으며, 해석의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해리스(Harris, 1998: 119)는 언어학적 측면에서 이러한 해석적 오류를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하나는 복사의 오류(telementational fallacy)인데 영역을 하면서 “역자가 번역한 어휘가 독자들에게 영어로 잘 전달되고 있다”라는 잘못된 전제에 관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확정성의 오류(determinacy fallacy)로 “단어와 의미 사이에 정해져있는 확실한 관계가 있다”는 전제이다. 전문번역가의 위치로 인해 간과 될 수 있는 이러한 두 가지 오류들은 여타 장르의 문헌들과 마찬가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불교어휘에 대해 독자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며, 이를 영어로 번역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해당 어휘에 대한 독자의 반응이 현실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어휘선택에 있어서 위의 두 가지 점들을 늘 염두에 두며 문장전체를 통해 단어의 의미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렇게 통사적 시각으로 번역을 접근해야 잘못된 오류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 이에 대해 조르겐슨의 청허문집 영역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However, there has to be something that inspires faith or confidence besides the discontent (Skt. duhkha) with the sufferings of the world of birth and death. This inspiration is the teaching of Buddhism, which is a form of compassion referred to in *the Awakening of Faith* as “perfuming” (薰), which leads to faith. (2015: 31)

그러나 여기에는 생사라는 (윤회)의 세계의 고통과 번뇌와 더불어 신심과 용맹심을 불러일으키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감응은 불교의 가르침이며, 원각경에서 신심으로 이어지는 “훈(薰)”으로 언급된 자비의 형태이다.

여기서 말하는 “훈(薰)”은 “진여(眞如)의 훈습(薰習)”, 즉 “참된 마음의 훈습”을 가리킨다. 참된 마음(true mind)은 자비와 사랑이 시작되는 곳인데, 고통과 번뇌가 아무리 많아도 이 자리는 본래 존재하여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진여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자비의 행동이며, 자비의 행동을 통해 진여가 있음을 자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잘 파악한 조르겐슨은 진여가 자비의 형태로 나타나는 과정을 “perfuming”이라고 표현하였다. 물론 “훈습(薰習)”이라는 용어 또한 번뇌라는 단어와 같이 쓰이게 되면 “습관-habit” 혹은 “업(業)-karma”으로 번역될 수 있지만, 위에서 언급된 예시는 진여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에 알맞은 어휘를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는 통사적인 관점으로 문맥을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어휘를 잘 선택한 경우로, 그저 글만 보고 직역한 것이 아닌, 내용의 맥락을 잘 이해하고 번역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불교문헌, 특히 문집과 관련해서는 문장을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그 문장 안에서 어떤 용어를 적절하게 배치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부분이 된다.

(5) 구조적 전위

구조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한문과 한글, 영어가 각기 다른 인식구조를 가지고 형성되었기 때문에 번역을 하는데 있어서도 각각의 해당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한문의 어순이 영어와 비슷하다는 점인데, 다음 사례를 통해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ST1) 次京城知足居士韻

寧務身前善
何須死後名
藥因療病出
鐘待動搥鳴

藏陸¹⁾修持少

1) 장육(藏陸) : 장엄할 장, 육지 육 잘 다듬어진 토지란 뜻으로 여기서는 재물로 해석하였다.

朝三)喜怒哀生
莫拘衣帶別
一法共留情 (HPC 10.7c23-8a3)

(ST2) 경성 지족거사의 운에 따르다

차라리 살면서 선에 힘쓸 것이지,
무엇하러 죽은 뒤에 이름을 구하는가.
약은 병을 고치려고 나왔고,
좋은 치기를 기다려 때리면 운다.

재물은 닦아 지닐게 적고,
조삼에는 기쁨과 분노가 생긴다.
의대의 다름에 구애되지 말고,
한 법에 모두 마음을 두자. (『묵암집』, 1995: 518)

(TT) Follow the poem by the lay man Jijok at Gy ngs ng

Rather you should do your best for goodness,
What do you seek a name after death for?
Medicine was made to cure diseases,
A bell is waiting to be beaten for ringing.

You are able to get a little thing from money,
Pleasure and anger occur from silliness.
Do not stick to the difference of statuses,
Let's focus all on our mind.

2) 『장자』 「제물론(齊物論)」에 송나라 저공(狙公)이 원숭이들에게 아침에 도토리 세 개 주고 저녁에 네 개 주겠다고 하자 원숭이들이 모두 성을 냈는데, 아침에 네 개 주고 저녁에 세 개 주겠다고 하자 모두 기뻐하였다. 이를 조삼모사(朝三暮四)라고 하며 어리석음을 뜻할 때 많이 인용된다. / 고전번역원, 『가정집』 제14권,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MK&url=/itkcdb/text/nodeViewIframe.jsp?bizName=MK&seojiId=kc_mk_a031&gunchaId=av014&munchelId=01&finId=009&NodeId=&setid=1619943&Pos=0&TotalCount=64&searchUrl=ok (2016. 11. 30).

비네이와 다벨네(Vinay & Darbelnet)는 번역과정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직역(direct translation)과 의역(oblique translation)이라는 두 가지 번역 전략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전략은 총 7개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직역에 해당하는 차용(borrowing), 모사(calque), 직역(literal translation)과 의역에 해당하는 치환(transposition), 변조(modulation), 등가(equivalence), 각색(adapta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Munday, J., 2000: 84-93). 이 일곱 가지 전략 가운데 대표적으로 치환, 즉 구조적 전위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겠다. 우선 전위(혹은 치환)는 “어휘의 의미를 바꾸지 않고, 출발어 어휘의 품사를 도착어의 다른 품사어로 번역하는 것(정호정, 2007)”을 말하며, 각각의 언어가 가지는 고유한 문체적 특징들을 잘 보여준다. 위에서 제시한 예에서, ST1에 실린 4번째 행인 “鐘待動槌鳴(종대동추명)”의 구절을 작게 잘라 보면, “鐘待動(종대동)”과 “槌鳴(추명)”으로 나눌 수 있다. ST2인 한글 번역본에서는 “종은 치기를 기다려 때리면 운다.”로 번역하였는데, ST1인 한문원전의 문체어순과는 조금 다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TT의 언어인 영어에서는 한문의 문체어순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영역의 “A bell is waiting to be beaten for ringing.”과 비교했을 때 한문의 문체어순과 영어의 문체어순이 거의 동일하다. 하지만 한문과 영역과의 차이에 있어서는 한역을 빌려 설명하자면, “종은 치기를 기다린다, 그리고 (종은)때리면 운다.”의 병렬적 어순형태를 띠게 된다. 이를 영어로 영역했을 때는 “A bell is waiting to be beaten and (a bell) is ringing after being beaten.”이라는 문장으로 번역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쓰게 되면 문장도 길어지고, 가독성도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and” 뒷부분에 나오는 문장구조를 “for ringing - 전치사 + 명사” 형태로 문장을 치환, 전위시켜 변화를 주었다. 이와 관련된 사례 또한 조르젠슨의 번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맥락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조적 전위를 한 부분이 보인다.

(ST) 一念情生 卽墮異趣 亦名守屍鬼子. (HPC 7.621a15)

(TT) If for a thought-moment feelings are produced, then you will fall into a different destination [of rebirth], you are also called a corpse-keeping demon. (2015: 109)

“一念情生 卽墮異趣(일념정생 즉타이취) - 한 순간 욕망이 일어나면 그 즉시 다른 곳(윤회)으로 떨어지니”, “亦名守屍鬼子(역명수시귀자) - 또한 이름하여 주검을 지키는 귀신이라고 말하리라”라는 문장이다. 조르겐슨이 영역한 첫 번째 구절을 살펴보면, “If for a thought-moment feelings are produced, then you will fall into a different destination [of rebirth]”라고 하였는데, 일념을 “for a thought-moment”라는 시간적 개념으로 보았다. 또한 구조적 배치에 있어서도 보통은 “for a thought-moment”를 문장의 뒤쪽에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원문에서 “一念 - 한 순간”이란 표현이 먼저 등장했기 때문에, 조르겐슨은 이 부분에 있어서 충실성에 입각한 번역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와는 반대로, 앞서 언급한 사례에서 필자가 “~and (a bell) is ringing after being beaten”을 “for ringing”으로 바꾸어 수용성의 입장에서 문장구조를 전위시켰는데, 조르겐슨의 번역과 필자의 번역이 이러한 점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겠다. 이는 영역에 있어서 구조적 전위라는 변화를 통해 어떤 관점을 택하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번역의 형태가 나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6) 보완적 결텍스트

제라드 주네트(Gérard Genette)의 『셰이유(Seuils, 1987)』에서는 결텍스트(paratexte)를 핵심텍스트의 설명을 포함한 책의 표지와 그림, 제목과 목차, 작가의 말과 유명인물들의 서평등의 요소들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결텍스트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결텍스트는 본문의 위치를 고려하여, 주변텍스트(péritexte)와 바깥텍스트(épitexte)가 합쳐진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주변텍스트는 본문을 위주로 하거나 본문을 둘러싼 설명들을 말하며, 바깥텍스트는 공적매체를 통한 번역서관련 사항들(신문, 잡지, TV, 라디오, 학술발표등)과 사적요소(일기, 편지등)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박선희, 2015: 8-22). 본 『묵암집』은 아직 출판된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바깥텍스트를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결텍스트의 두 가지 요소 가운데 주변텍스트요소를 통해 문체번역의 가능성을 논하고자 한다. 『묵암집』은 장르상 고전문학에 속한다. 고전문학은 몇 가지 특징들을 통해 결텍스트를 필요로 하는데, 첫 번째로 옛 어휘들의 등장을 들 수 있다. 수용성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영어권 독자들을 위해 익숙하지 않은 어휘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한데, 다음의 예를 통해 결텍스트를 설명해 보고자 한다.

(ST1) 先師諱取訥 字耳食 號默庵 密陽朴氏子 肅宗大王四十四 丁酉四月十八日子時生于興陽縣長沙邨. (HPC 10.24b9-12)

(ST2) 선사의 휘는 최늘, 자는 이식, 호는 묵암이다. 밀양박씨 자손으로, 숙종대왕 사십사년 정유년 사월 십팔일 자시에 태어났으며, 홍양현 장사촌 출신이다. (『묵암집』, 1995: 625)

(TT) The master's taboo name was Choinul, his first name was Isik, and his style was Muk'am. He was a son of Milyang Park's family clan. He was born, at Ja-si2 on 18 April of the Jōngyu year, the 44th (of the reign) of the great king Sukjong, in Jangsa-chon (village) of Hūngyang-hyōn (town).

2) 'Ja' means 'mouse' which is one of the twelve animals: Ja子 - Mouse(between 11pm and 1am), Chuk丑 - Cow(between 1am and 3am), In寅-Tiger(between 3am and 5am), Myo卯 - Rabbit(between 5am and 7am), Jin辰 - Dragon(between 7am and 9am), Sa巳 - Snake(between 9am and 11am), Oh午 - Horse(between 11am and 1pm), Mi未 - Sheep(between 1pm and 3pm), Shin申 - Monkey(between 3pm and 5pm), Yu酉 - Chicken(between 5pm and 7pm), Sul戌 - Dog(between 7pm and 9pm), Hae亥 - Pig(between 9pm and 11pm).

혹은

2) Between 11pm and 1am.

ST1의 원문은 “肅宗大王四十四(숙종대왕사십사) 丁酉四月十八日子時生(정유사월십팔일자시생) 于興陽縣長沙邨(우흥양현장사촌) - 숙종대왕 사십사년 정유년 사월 십팔일 자시에 태어났으며, 홍양현 장사촌 출신이다.”라고 하여 “자시(子時)”라는 고전 방식의 시간 표기법을 사용하였다. 동양권에서는 상당히 익숙한 표현이지만, 서구권에서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부분이다. 우선 “자시”에 대한 영어식 표기방식을 “Ja-si”라고 하였는데, 조르겐슨이 번역한 불교문집

들에 의거하여 음차번역을 하였으며, 외국의 다른 문헌들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있어서 위와 같이 쓰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시”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도, 한국은 12간지라는 시간적 개념을 과거에 보통 사용했었는데, 지금처럼 시간을 한시, 두시로 쓰기보다 두 시간씩 시간을 묶어 자(子, 11시~1시), 축(丑, 1시~3시), 인(寅, 3시~5시), 묘(卯, 5시~7시), 진(辰, 7시~9시), 사(巳, 9시~11시), 오(午, 11시~1시), 미(未, 1시~3시), 신(申, 3시~5시), 유(酉, 5시~7시), 술(戌, 7시~9시), 해(亥, 9시~11시)라고 하며 12마리 동물로 시간을 나누어 구분하였다. 따라서 문집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통적 표현방식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각주나 괄호를 통해 설명을 덧붙여 곁텍스트 장치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는 위의 사례에 있어서 두 가지 경우로 곁텍스트를 첨부해 보았는데, 첫 번째 곁텍스트인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를 모두 설명하는 방법과, 두 번째 곁텍스트처럼 “Between 11pm and 1am.”으로 간단히 설명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곁텍스트를 나누어 보았다. 첫 번째와 같이 긴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뒤에 별도로 공간을 마련해 곁텍스트를 덧붙이려 하는데, 조르겐슨의 청허휴정문집 영역사례들을 살펴보면 뒤에 “노트(Notes)”란을 두어 따로 자세히 설명한 것을 볼 수 있다.

A former virtuoso said, “The mind is the mould and pattern of the myriads of forms; karma is the shadow or echo of the one-mind.” He also said, “All of the myriad dharmas are illusory productions from the mind, and since the mind already lacks form, how can the dharmas have forms?” 278 (2015: 111)

(NOTES to PAGES 110-111)

278. *Samga Kwigam* (HPC 7.621b4-6) and Chinese versions of the *S n'ga kwigam* lack “a former virtuoso said.” “Forms” is *ölgul*, in Chinese 相 or 形. Last part from *Zongjing lu*, T48.511c16-17, “What is to regard all dharmas to be illusory productions from the mind? Since the mind already lacks...” (2015: 219)

조르겐슨은 문장의 끝이나 설명이 필요한 어휘 옆에 “278”과 같은 숫자를 붙여 각주처럼 따로 표시를 하였는데, 번역문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직

접 찾아볼 수도 있고, 본문의 밑에 배치하지 않고 뒤에 설명을 해 놓아 글의 흐름이 끊기지 않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짧은 결텍스트는 “각주”로, 긴 결텍스트는 “노트(Notes)”란을 배정해 활용하면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역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다.

다음 두 번째로는, 『목암집』이라는 작품이 불교문헌이기 때문에 불교 사상 사적 배경을 참고해야 문맥이 이해된다는 점이다. 독자의 수용성 정도를 높이기 위해 이러한 점을 결텍스트를 사용하여 언급해 줄 필요가 있다. 다음은 그러한 사례를 잘 보여주는 한 예시이다.

(ST1) 接中國之太古 宜爲祖者之祖禰 育兩桂之芙蓉 可作中葉之中祖.

(HPC 10.19b17-18)

(ST2) 중국으로 건너간 태고를 대우하여 마땅히 선조들의 할아버지, 아버지로 삼고, 양규를 기른 부용은 중엽의 중조로 삼았네. (『목암집』, 1995: 596)

(TT) Respecting the [ancient] high priest, Taego, who went over to China, we regarded him absolutely as our grand father or father. And (also) we considered the reverend Buyong who raised two stems⁽¹⁾ or the Chõnhõ lineage and the Buhyu lineage) as our great ancestor in the Middle Period.

1) the Chõnhõ lineage and the Buhyu lineage.

조선후기 불교사상사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쉬울 수 있는 텍스트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다. 우선 ST1의 첫 구절인 “接中國之太古(접중국지태고)”만 보더라도 한국불교의 첫 시조라고 할 수 있는 “태고보우(太古普愚, 1301~1382)”를 간단히 태고라고 칭한 점은 불교 역사를 이해해야만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또한, 세 번째 구절인 “育兩桂之芙蓉(육양규지부용)”에서 “양규(兩桂)”는 조선후기 당시 불교의 양대산맥을 이루었던 “청허계(淸虛系)와 부휴계(浮休系)”를 지칭하는 것이며, “부용(芙蓉)”은 다른 뜻이 아닌 청허계와 부휴계의 시작점이었던 “부용영관(芙蓉靈觀,

1485~1571)”이란 인물을 언급한 것이다. 불교문집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와 같이 용어, 특히 인물의 이름을 축약해서 쓴다는 점인데, 불교문헌을 보다가 모르는 용어가 나왔을 때, 사전을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으면 대다수가 사람의 이름일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을 참고 하면 번역할 때 유용하다. 이와 같이 어휘적인 표현이나 역사적인 배경 설명이 필요한 경우, 수용성 혹은 가독성의 입장을 고려해 보완적 결텍스트를 활용하면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해당 문집인 『묵암집』을 영역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충실성을 기반으로 하지만 위 사례와 마찬가지로 경우에 따라 각주 혹은 괄호(bracket)를 사용하여 수용성을 높이는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4. 맺음말

본 연구는 조선후기 불교의 부휴계 문집인 『묵암집(默庵集)』을 영역하는데 있어서 그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본문에서는 작품에 나타난 문체적 요소들을 살펴보고, 당시 부휴계와 함께 존재했던 청허계의 문집 영역 사례들과 함께 비교해 보았다. 필자는 문집의 문체적 요소들을 시학적 요소와 인지적 요소로 구분하였다. 문집 영역을 위한 분석에서, 시학적 요소로는 어휘 표현의 반복과 중복된 형태소의 생략, 동일 각운의 배치 등을 다뤄보았는데, 어휘 표현의 반복과 중복된 형태소의 생략에서는 원천텍스트(ST1, ST2)의 시적인 느낌을 잘 살릴 수 있도록 목표텍스트(TT)로 번역했을 경우, 동일한 문법구조를 쓰거나 중복되는 부분들을 생략함으로써, 시적인 운율감을 나타내 보았다. 또한 동일 각운의 배치에 있어서는 한문의 작시(作詩)형식인 1, 2, 4행의 각운을 최대한 반영하여 영역하였지만, 반드시 일치시킬 수 없는 현실적인 난제에 대해 얘기 해 보았다. 두 번째로는 인지적 요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어휘에 대한 이해, 어휘선택, 구조적 전위, 보완적 결텍스트 등을 설명하였다. 어휘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는 역자가 한문불전에서 쓰이는 어휘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냐에 따라 번역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의미위주의 번역(semantic translation, 원문의 충실성)보다 소통위주의 번역(communicative translation, 독자의 수용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이를 적용시킬 수 있을지

를 고민해 보았다. 또한 어휘선택에 있어서 사전적인 의미가 아닌, 통사적인 관점으로 문장을 바라보고 단어를 선택해야 함을 언급했으며, 구조적 전위(치환)에 있어서는 한문원전(ST1)과 한글번역(ST2)의 언어적 인지구성순서를 설명하며 영어번역어순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들어 이를 가독성(readability)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결텍스트에 관해서는 주변텍스트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예를 들어 고전방식의 어휘 표현이라든지 불교 사상사 측면에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내용을 덧붙이거나 따로 노트(Notes)란을 두어 독자들의 이해를 도울 것임을 언급했다.

이번 논문을 통해 문체적 요소들을 기반으로 『묵암집』 영역의 가능성을 시고(試考)해 보았다. 문집이라는 장르가 크게 보면 고전문학에 속하기 때문에 원문이 가진 특징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충실성에 기반을 둔 번역을 해야 하지만, 이는 자칫 회소성이라는 방향으로 흘러 대중성의 성격을 잃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원문 텍스트가 가지는 문체적 요소들을 토대로 독자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영역을 시도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선사문집의 영역이 이제 막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본 연구가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연구가 첫걸음이 되어, 한문 불전에 대한 심도 있는 영역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길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1) 원전

『默庵集』 (『韓佛全(HPC)』 10卷)

默庵最訥, 『默庵集』

(2) 참고문헌

권병철 (2012) 『번역모형 및 고전문학 번역과정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성구 (1995) 「묵암집」, 『소요당집 外』, 서울: 동국역경원, 445-638.

노동욱 (2015) 「문학번역의 번역(불)가능성」, 『동서비교문학저널』33: 87-111.

- 동국역경원 (1989) 『韓國佛敎全書』, 서울: 동국대학교, 10.1a-25c.
- 박선희 (2015) 「번역문의 결텍스트」, 『번역학연구』16(1): 7-33.
- 박옥수 (2012) 「한영 문학번역의 비평에서 드러난 번역 현상」, 『동아인문학』 21:35-61.
- 양은용 (2013) 「불법연구회근행법 원문」, 『한국종교』 36: 299-357.
- 이광복 (1999) 「구성주의 문예학과 그 문학교수법적 함의」, 『獨語敎育』 17: 231-254.
- 이근희 (2006) 「인지적 접근의 번역 모형」, 『번역학연구』 7(1): 131-154.
- 장철환 (2013) 「정지용 시의 리듬 연구」, 『한국시학연구』 (36): 61-96.
- 정호정 (2007) 『체대로 된 통역·번역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 한미애 (2011) 「황순원의 ‘학’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2(4): 205-229.
- Benjamin, Amy (2006) *Writing put to the test: teaching for the high stakes essay*, New York: Eye on Eduation. Inc.
- Boase-Beier, J. (2011) *A Critical Introduction to Translation Studies*, London: Continuum International Publishing Group.
- Genette, Gerard (1987) *Seuils*, Paris: Editon du Seuil.
- Harris, R. (1998) *Introduction to Integrational Linguistics*, Oxford: Pergamon.
- Munday, Jeremy (2001)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Newmark, P (1981) *Approaches to Translation*, Oxford and New York: Pergamon.
- Stockwell, Peter *Cognitive poetics; an introduction*, London & New York: Routledge.
- Tsur, Reuven (2008) *Toward a Theory of Cognitive Poetics*, Eastbourne: Sussex Academic Press, 2nd edition.
- Vinay, J.-P., & Darbelnet, J (1958/2000) “A Methodology for Translation”. In L.Venuti (ed.),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pp.84-93). London: Routledge.

(3) 인터넷 사이트

<http://db.itkc.or.kr> (고전번역원)

[Abstract]

A Study on English Translation of *the Muk'am Collection*

— Focusing on the elements of literary style —

Yu, Nayeong
(Donggu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collection translation through analyzing the elements of literary style. The literature used in this study, *The Muk'am Collection*, was written by Seon Master Muk'am Choinul in the late Joseon Korea period. As the late Joseon Korea period when this collection was published was the closest time from now, we can compare the terms used at that time with the terms being used in the current Buddhist world. Furthermore, it has high historical values because the late Joseon Korea period was the most precarious time in the Buddhist history, so Seon Master Muk'am made an effort to express the essence of Buddhism through his work.

I divided the literary style into two kinds of elements: poetic elements and cognitive elements. For the poetic elements, the repetition of grammar expression and the omission of duplicated morphemes, the same rhymes were used to emphasize the feeling of cadence and enhance the poetic sense. On the other hand, for the cognitive elements, the understanding of (Buddhist) terms, word choice, structural transposition, and complementary paratexts were used to let readers easily understand and accept the work. Those two kinds of elements play basic roles within contexts.

With such factors, this research aims to examine whether more weight should be placed on semantic translation, which is based on faithfulness, or communicative translation, which is based on acceptability or readability, and how to apply it in the process of analyzing the two elements. According to

Newmark (1981), it is difficult to satisfy both of the faithfulness and the acceptability or the readability. Fulfilling both of them would give the best translation, but translators' abilities are different, so I think that this is an English translation task to be solved in the future.

Based on this study, I look forward to carrying out various researches on the possibility of English translation of other Buddhist Collections by analyzing basic elements of literary style and wish to use this opportunity for more in-depth research.

▶ Key Words: Collection translation, Korean Buddhist Collection, Korean Seon Master, Literary style, *The Muk'am Collection*

유나경

동국대학교 불교융합학과 한문번역학전공

wishwisdom4u@daum.net

관심분야: 문집번역, 문체번역, 불교번역

논문투고일: 2017년 1월 31일

심사완료일: 2017년 2월 26일

게재확정일: 2017년 3월 6일